

2017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오전)

해설, 예시 답안, 평가 기준

■ 문항 1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문항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노인 부양, 효, 가족 관계의 윤리(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사회 복지
예상 소요 시간	60분/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생활과 윤리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다. 학습 내용별 성취 기준 (2) 생명·성·가족 윤리 (라) 가족 관계의 윤리 ② 가족의 가치와 부모 자녀 간의 윤리 ④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문항1 논제,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사회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문항1 논제, 제시문
	(3) 합리적 선택과 삶 (가) 고령화와 생애 설계 ①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현상과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항1 논제,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과목명: 사회·문화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내용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바) 사회 복지의 의미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다.	문항1 논제,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 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독서]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항1 문제 유형
성취기준 및 내용	[작문]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문항1 문제 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 I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문항1 문제 유형
성취기준 및 내용	[작문]	(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문항1 문제 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화법과 작문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설득]	(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문항1 문제 유형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독서와 문법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15)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른다.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항1 문제 유형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4	93	논제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92	논제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84-85	(가)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5	161	(가)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4	74-75	(가)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90-91	(나)	○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4	87	(나)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4	74-75	(나)	○
고전	정민 외	해냄에듀	2014	298-309	(나)	○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4	86-87	(다)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4	89-91	(다)	○
사회·문화	강운선 외	미래엔	2014	158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90-91	(마)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4	89-91	(마)	○

나.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오래된 미래	노르베리 호지	중앙북스(주)	2007	147-148, 175-176	(나)	○
지식의 최전선	박승희 외	한길사	2002	442-446	(나)	○

3. 출제 의도

수험생 세대가 자신들과 동떨어진 문제로 인식할 법한 주제이면서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인 ‘노인 복지’의 문제에 관한 논술의 경험을 통해 학생이 가족, 노년, 복지, 세대 간 정의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다. 수험생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일이 현대 사회의 주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논술하게 된다.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등 수험생에게 익숙한 교과서 내용을 제시문으로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논술의 주제인 ‘노인 부양’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가족 중심의 부양이라는 해법과 사회 복지를 통한 해법이라는 두 해결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해법은 가족 중심의 부양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서술하고, 가족공동체에서 효의 의미를 설명한다. 부모(노인) 부양은 효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데, 이 때 물질적 봉양에 그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효라는 가치관이 제시된다. (가)의 후반부는 노인 복지를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다루는 북유럽의 방식을 제시한다. 이 방식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가 제공하고 관리한다.

제시문 (나)는 고령화 시대 노인 부양 문제의 해법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구현을 제시한다. 노인 부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이 구현된 사례로 라다크 가족공동체의 노인 부양이 갖는 쌍방향적 이익에 관해 논한다. 라다크 노인들은 가족공동체의 부양을 받지만 단순히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손자 세대의 사회화를 돕는 등 가족공동체에 기여한다. 이 제시문은 ‘가족 중심 부양’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서술하면서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 중심의 부양이 아니라 사회 중심의 부양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자녀 세대의 이른 물리적,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관념이 뚜렷이 약화된 상황에서 노인들의 삶은 공공에 직면하기 쉽다. 사회는 현 세대를 이룩한 공헌 노인 세대의 공헌을 인식하고, 응분의 보상을 통해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노인 복지 제도는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는 한 방안이다.

제시문 (라)는 복지 천국으로 칭송되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세금을 활용한 국가부양의 분업체제로 이루어진 북유럽의 복지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일면적, 단기적, 일방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런 체계에서는 물질적인 부양은 가능하지만 정서적 측면의 고려는 형식적이 될 것이며, 인간적인 부양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관계 자체에서 오는 불편과 화해의 과정을 행복의 요건으로 보고, 사회복지를 통한 노인 부양이 생활세계가 단조로워지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 제시된다. ‘가족 중심 부양’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늙는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운명임을 강조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인 세대의 안정된 생존이 필수적임을 서술함으로써 ‘사회 중심 부양’의 논거를 제공한다.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노후를 대비할 여건에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빈곤한 노인들은 반드시 생겨난다. 이는 노인 자살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갈 안정된 미래 사회를 위하여 노인 세대의 복지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가족 중심 부양’과 ‘사회 중심 부양’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생각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쪽을 선택했는지를 제시문 (가) ~ (마)에서 두 가지 이상의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 <가족 중심 부양>을 선택한 경우:

노인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부양해야 한다. 첫째 노인을 부양하는 일의 핵심이 효의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부양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노인 부양의 핵심은 물질의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대하는 효의 정신에 있다. 대상이 되는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관심이나 사랑과는 무관하게 사회가 기계적으로 행하는 부양과, 빠듯한 사정이라도 부모에 대한 보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행하는 봉양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공자는 전자를 “개나 말도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효심의 표현이라야 진정한 부양이고, 그것은 가족 중심의 부양에서 가능하다.

둘째 가족이 중심이 되어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의 노인들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젊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단순히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가족공동체에 기여한다. 경험과 지혜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면서 서로 돕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그로 인해 누구든지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 이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거시적 연대감과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것이다.

핵가족화와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념이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서두르지 않으면 노인 자살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인 부양의 중심을 사회에 두는 것은 본말을 뒤바꾸는 것이다. 사회는 가족 중심의 노인 부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노인들은 가족공동체의 연대 속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제도 중심의 부양은 노인의 소외감을 덜기 힘들다. 가족 중심 부양으로 서로 간에 불편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고단한 과정이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빈칸 포함 1,006자)

*** <사회 중심 부양>을 선택한 경우:**

노인은 사회가 중심이 되어 부양해야 한다. 첫째,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오늘날 노인의 부양은 현실적으로 가족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세대 간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선 세대가 없었더라면 후세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노동이 없었더라면 후세대까지 사회가 지탱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처할 수 있는 가난을 방지해야 하고 그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둘째,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노인은 사회가 중심이 되어 부양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기 때문에, 노인 세대의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다. 노인 부양을 저마다 형편이 다른 개인에게만 맡길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는 노인들이 생겨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늙은 부모를 자식이 봉양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인들은 생존 절벽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이외 연령층의 빈곤율의 3.5배를 넘는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노인 자살률 등은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위기를 방증하는 사례이다.

사회복지를 통해 노인 세대에 대한 물질적인 부양은 가능하지만 정서적, 인간적 부양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중심 부양이 곧 비인간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북유럽과 일본 등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소규모의 생활 공동체 단위로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도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는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새로운 공동체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노인 세대는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띄어쓰기 포함 1,008자)

※ 논거 참고 자료

1.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로 제시문에서 다음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2. 각 내용은 유사한 것끼리 함께 제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3. 예상되는 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해야 하고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단, 답안 전체의 논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고 이미 다른 내용의 단순 반복은 아니어야 함.

*** <가족 중심 부양>을 지지하는 논거 예시**

(가)

- 가족의 본래적 가치는 보편적이다. 즉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다.
- 자녀는 부모를 효심으로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 노인 부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고통까지 경감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를 중심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
- 라다크의 가족공동체 모습은 가족 중심 부양의 이점을 보여주는데, 가족 부양은 노인의 건강, 쾌활함과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손자 손녀 등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라)

- 사회복지의 천국처럼 알려진 북유럽의 경우도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는 부양노동자의 책임과 피부양자의 권리가 만나는 사무적 관계이며, 일면적이고 단기적이며 일방적인 관계이다.
- 사회적 부양은 물질적인 부양은 가능하지만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부양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 인간 관계의 행복은 편리 추구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락상생의 원칙 속에서 추구되는 것이므로, 노인은 가족 관계 속에서 부양되어야만 한다.

* <사회 중심 부양>을 지지하는 논거 예시

(가)

- 복지가 발달한 국가들은 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다룬다. 복지 국가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려고 한다.

(다)

-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 부모가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일은 공간적 관점에서나 경제적 관점에서나 공히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었다.
- 노인 세대는 오늘의 사회를 이룩한 세대이고, 현 세대는 노인 세대에게 경제적인 빛과 존재의 빛을 지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공헌에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개인들 간의 보상이 아니라 세대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시적인 의무다.

(마)

- 노년은 선택 불가능한 보편적인 단계다. 따라서 노인 세대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 노인 부양을 저마다 형편이 다른 개인(자녀 등)에게만 맡길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는 노인들이 생겨난다. 이는 노인 빈곤, 나아가 노인 자살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된다.
- 노인 세대가 빈곤으로 인한 몰락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

6. 평가 기준 (총 60점 만점)

*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

(1) [기본 조건 충족]

- 제시된 분량(900자 - 1,100자)이고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문제의 논점(<다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선택사항의 핵심적인 의미)을 정확히 파악함.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첫 논거를 제시함.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제시함.
 - 제시문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함.
(재반론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 반론-재반론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음.)

(2) [논리성 - 가점]

- 다음의 경우 가점(+).
 - <제시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거를 심도 있게 서술함.
 -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탁월함.

(3) [형식 요소 - 감점]

- 다음의 경우 감점(-).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지 않았거나 양쪽 모두를 선택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제시된 분량(900자 - 1,100자) 범위를 지키지 못함.

해설, 예시 답안, 평가 기준

■ 문항 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문항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경제,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가계 부채, 신용과 부채 관리,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사회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3) 합리적 선택과 삶 (다)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③ 경제생활에서 다양한 지불 방법(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과 저축 수단(예금, 채권, 주식 등)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과도한 소비의 문제점과 신용이나 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문항2 제시문(<다음>), 자료 주제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경제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6) 경제생활과 금융 (가)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저축, 투자, 부채, 신용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문항2 제시문(<다음>), 자료 주제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 내용		관련
	[작문]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문항2 문제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I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 내용		관련
	[독서]	(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문항2

내용		읽는다.	문제유형
	[작문]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문항2 문제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화법과 작문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 내용		관련
	[정보 전달]	(11)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글을 쓴다.	문항2 문제유형
	[설득]	(25) 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문항2 문제유형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2014	119	제시문(<다음>)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4	139	제시문(<다음>)	○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144	제시문(<다음>)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148	제시문(<다음>)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4	228-229	제시문(<다음>)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4	257-258	제시문(<다음>)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4	218-220	제시문(<다음>)	○
경제	오영수 외	교학사	2014	236-237	제시문(<다음>)	○

나. 교과서 외

자료명	발행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주택은행 주택가격지수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1>	○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자료2>	○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자료3>	○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자료4>	○
OECD 데이터	https://data.oecd.org/	<자료5>	○

3. 예시 답안

1)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은 <자료 1>과 <자료 3>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자료 3>에서 거주용과 거주 이외 목적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비중의 합이 다른 용도의 대출보다 높고, <자료 1>에서는 2010~2015년 중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의 상승과 함께 은행 대출금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 1>에서 기준 금리가 하락하여 부채에 대해 지불할 대출 이자 비용이 하락하는 것도 대출 확대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자료 2>, <자료 5>에서 알 수 있다. <자료 2>에서는 2010~2015년 중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율(33.8%)이 소득 증가율(28.8%)보다 높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고, <자료 5>에서는 상환 능력의 지표인 부채-소득 비율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5개 소득 분위별로는 <자료 2>에서 소득 2, 3, 4분위인 경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 상환 능력 약화를 추론할 수 있다.

3) <자료 2>에서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소득 분위는 2, 3, 4분위이다. 그런데 <자료 3>을 보면 이 세 분위 중에서 소득 2분위가 부채 상환이나 생활비 마련과 같은 생계형 대출 비중의 합이 13.2%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칸 포함 700자)

4. 출제 의도

[문항 2]는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였는지를 점검하고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사회·경제 교과서를 인용·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가계 부채의 증가 현상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초래한 원인, 그리고 우려된다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 그리고 소득 분위별 특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 즉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 개인의 경제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고, 금융 기관의 건전성 약화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경제적 독립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의미 있는 주제라는 판단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 현상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5. 자료 해설

자료는 총 5개가 표와 그림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각각의 자료를 개관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1>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금리 및 은행 대출금 추이를 나타낸다. 금리는 부채 사용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의미하고,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는 주택용 대출인 경우 부채 사용 금액의 증가를 짐작케 한다.

<자료2>는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20%씩 가구를 균일하게 나눈 상태에서, 소득 분위별로 부채와 연소득 추이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부채 증가율과 연소득 증가율 간의 비교를 통해 부채 상환 능력의 약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료3>은 2015년 현재 대출의 용도를 거주 주거용 대출, 거주 이외 목적 부동산 구매, 부채 상환, 생계비 마련, 기타로 각각 세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자료4>는 적자 가구, 즉 소비 지출이 처분 가능 소득보다 많은 가구의 비중의 2010~2015년 중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5>는 부채-소득 비율, 즉 가구의 총 부채액을 연간 소득(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값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다른 비교 대상국에 비해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논제는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가계 부채 증가를 초래한 원인과, 관련된 다른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자료1>, <자료3>)을 선별해야 한다. 다음은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자료2>, <자료5>)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자료3>을 사용하여 대출의 용도로 생계형 성향이 가장 높은 소득 분위를 찾도록 구성되어 있다.

6. 논제 해설

[문항 2]는 크게 세 가지 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가계 부채 증가가 초래된 원인을 찾는 것이다. 둘째,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 전체 차원과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찾아내는 것이다. 셋째,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소득 분위 중에서 생계형 부채 성향이 가장 높은 소득 분위기를 찾는 것이다.

(1) 가계 부채 증가가 초래된 원인

우선 <자료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2015년에 주택(및 전세) 가격 지수가 증가하는 데 따라 주거 비용이 상승해 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기준 금리가 감소함에 따라 대출 금리, 대출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3>에서 주거용, 그리고 거주 이외 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의 비중이 전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및 전세) 가격 상승이 가계 부채 증가를 초래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국가 전체 차원, 소득 분위별)

국가 차원에서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자료 2>, <자료 5>에서 찾을 수 있다. <자료 2>에서 2010~2015년에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율(33.8%)이 소득 증가율(28.8%)보다 높아 상환 능력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5>에서 상환 능력의 지표인 부채-소득 비율의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별로 볼 때도 역시 <자료 2>에서 소득 2, 3, 4분위에서는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생계형 대출 성향이 가장 높은 소득 분위

앞서 <자료 2>에서 파악된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소득 분위는 2, 3, 4분위이고, <자료 3>에서 부채 상환이나 생활비 마련과 같은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평균치에 비해 높은 곳은 소득 1, 2, 3분위이다. 이 가운데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 분위는 2분위이다. 참고로 소득 4, 5분위의 경우 거주 이외 목적의 부동산 구매 비중이 다른 소득 분위보다 높아 부채 증가가 자산 증식용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없는 자료

<자료4>는 논제와는 무관한 자료이다. <자료4>는 적자 가구, 즉 소비 지출이 처분 가능 소득보다 많은 가구의 비중이 2010~2015년 중 변화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전 소득 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는 논거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7. 평가기준

(1) 가계 부채 증가가 초래된 원인 → 총 10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아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감점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1 자료3	10점	- <자료1>의 주택 및 전세 가격 지수 상승 언급
		- <자료1>의 기준금리 하락 언급
		- <자료3>의 거주 이외 목적 부동산 구입에 대한 언급
		가점: -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사용 비용 감소로 부채 증가 유인이 발생하고, 대출은 주로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채(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기술한 경우 - 형식 요건 ¹⁾

1) 형식 요건: 정확한 단위,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2) 가계 부채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국가 전체 차원, 소득 분위별) → 총 15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아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감점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2 자료5	15점	- <자료2>의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율 > 소득 증가율’임을 서술
		- <자료5>의 한국의 부채-소득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증가세임을 서술
자료2	15점	- <자료 2>에서 소득 2, 3, 4분위의 부채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서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서술 ※ 3개의 소득 분위 중 2개 이상을 언급하면 됨(예를 들어 2분위, 4분위만을 언급해도 됨)
		가점: -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 전체 차원과 소득 분위별로 구분하여 논리정연하게 서술 - 형식 요건 ¹⁾

(3) 생계형 부채의 성향이 가장 높은 소득 분위 → 총 15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아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감점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2	15점	-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소득 분위가 2, 3, 4분위임을 <자료 2>를 인용하여 서술
자료2		- 부채 상환이나 생활비 마련과 같은 생계형 대출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평균치보다 소득 1, 2, 3 분위에서 더 높음을 <자료 3>을 이용하여 서술 - 앞서 <자료 2>와 함께 <자료 3>을 파악하여, 상환 능력 약화가 발생하는 소득 분위 중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2분위에서 가장 높다(13.2%)는 것을 언급
자료3		가점: - <자료 2> <자료3>을 적절히 활용해 생계형 부채의 성향이 가장 높은 소득 분위기를 찾는 과정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할 경우 - 형식 요건1)